

양돈인 부녀회의 활동으로 돈육소비 홍보상을 수상한

취재 : 곽삼섭 기자



지난 1980년도에 양돈인 친목회에서 대한양돈협회 지부를 창립하여 업무를 개시한지 올해로 8년째를 맞은 이천·여주지부.

이천·여주지부(지부장 : 박용각)는 서울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약 74km(약 1시간 10분 소요)거리인 이천군 이천읍 중2리 166-2(이천축협 3층, 전화 : 0336, 2-4121)에 위치해 있으며, 초대 이인호 지

부장이 지부운영을 맡아오다 82년도부터 현재 박용각 지부장이 3대, 4대, 5대, 6대째 지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천·여주지부는 이천군 일원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소규모 양돈농가는 물론 전업규모(대규모)양돈농가를 중심으로 결성, 현재 회원수는 61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화단결, 상부상조, 종돈개량이란

운영 방침아래 회원들의 정보제공과 회원배가 운동을 위해 생산자단체인 지부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천·여주지부는 매일 1회씩 운영위원회, 월례회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매달 초 한달간의 업무파악과 지부운영 계획을 세우는 등 다각적인 활동사항을 구



책상없는 박용각 지부장

리는 물론 질병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를 시청하고 서로 의견을 토의, 양돈기술을 전달해 주고 있다. 특히, 초보자를 위한 양돈기술 강좌 테이프를 제작, 언제나 지부사무실에 방문하는 사람은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에서부터 100여두의 중소규모 양돈농가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력하여 공존의식을 갖고 있는 이천·여주지부는 「대한양돈협회의 지부를 알고 싶거든 이천·여주지부로 와 보라」고 하는 박용각 지부장의 한마디 언행격에 책상없는 지부장으로 10여평의 사무실은 내실을 기하는 업무처리로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 회원들에게 생산자단체의 중요성을 인식케 했다.

특히, 회원별 개인기록부, 회원별 재무기록부, 회원별 신상명세



업무처리는 강영숙양이

서, 상호회, 농장방문철 등 각 개인별 회원문서 화일을 비치, 강영숙양이 개인별 목록을 기록하여 월례회의 때마다 항상 보여주고 있어 회원전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임하고 있다.

또, 이천·여주지부는 물품공동구매, 돼지 판매 알선, 종동구입 알선, 비육사업, 농장관리인 소개 등 회원들을 위한 직접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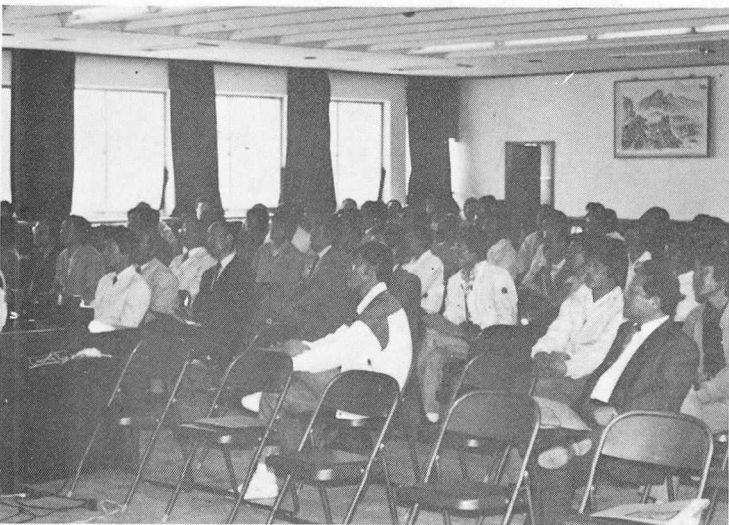
이천·여주지부는 지난 1986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우수지부로 선정, 우수지부상을 수상해 전국지부의 본보기가 된 것은 회원들의 참여의식이 배양된 개인별 문서 화일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천·여주지부는 회원들의 부인으로 구성된 양돈인 부녀회의 활동이 대단했다. 초창기 부부동반의 관광과 선진지 및 농장견학의 목적에서 지금은 중앙회의 돼지고기 홍보에 발맞추어 지부자체 홍보사업은 물론, 상하반기 이천·여주 축

상·전개하고 있다.

월례회의겸 세미나에는 매회 90% 이상의 회원들이 참석, 양돈현안 문제를 논의함과 아울러, 사양관리 및 질병관리에 대하여 약품업계·축산관계 연구진, 농장실무자들을 강사로 초청, 세미나를 실시해 오고 있다.

세미나가 끝나면 비디오 시설이 되어있는 지부사무실에서 사양관



돼지수급 안정을 위한 세미나로 회원들의 모습은 진지하기만 하다.



축산인 체육대회때 이천·여주 지부 양돈인 부녀회 응원단

산인 체육대회때나 양돈인 부녀회에서 돈육요리경연대회 시식회를 연 2회 실시하기도 해 지난 2월 대의원 총회에서 돈육소비 홍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위여건상 수도권 상수도 보호지역이기는 하지만, 서울 3개 공판장과 지방상인들에게 연 24만여두를 출하하는 이천·여주지부 회원들은 타지역 양돈농가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이는 일찍부터 종돈개량 보급에 앞장서 육질개선이 다른 지역보다 잘 된 것이라고 주위 사람들은 평하고 있다.

'88년말 현재 이천군 양돈 농가는 1천 9백 73호이고, 부업농을 제외한 전업규모로 구성된 회원별 평균 사육두수는 100두 13명, 101~299두 13명, 300~499두 15명, 500~999두 8명 1,000~9,999두 8명, 10,000두 이상 4명으로 지부 통



이천·여주지부는 축산인 체육대회 때마다 양돈인 부녀회에서 돈육요리경연대회 시식회를 연다.

계에 나타나 있다.

이천·여주지부는 회원의 모든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모든 100두 이상 15만원, 100두~50두 10만원, 50두~30두 5만원, 30두 미만 3만원을 특별회비로 정하여 지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자체건물 마련과 서울·경기양돈조합 지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어 회원관리는 물론 지부운영 목표를 별도로 설정, 세부지침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 임원회의에서 여주

지부를 창립키로 결의하여 여주지부 창립위원회에서 지난 7월 창립총회를 개최, 중앙회의 지부설립 승인만 되면 이천·여주지부는 이천지부와 여주지부로 분리하게 된다.

서기 1894년 갑오경장시 개칭한 이천군은 현재 비농가를 포함 2만 6천 67호의 가구에 인구는 남녀 포함 11만 9천 4백 30명으로 이천군

관내 통계연보에 나타나 있다.

이천·여주지부의 운영조직은 다음과 같다.

- ▷ 지부장: 박용각(이화농축)
- ▷ 부지부장: 권순영(주영농장)
- ▷ 총무: 정창영(인화농장)
- ▷ 감사: 홍승근, 진영문(현구농장)
- ▷ 운영위원: 이명우(동천농장), 손순팔(협진농장), 윤희진(대일종돈장), 임치환, 차영호(대일농축장), 이인혁(제일종축), 정영찬(대왕축산)